
 <b>인천광역시</b>		<b>설 명 자 료</b>		
		배포일자	2022년 12월 11일(일) 총 2매	
담당 부서	장애인복지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서비스팀장</li> <li>담당자</li> </ul>	정보영 ☎440-2936 임은정 ☎440-2937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「장애 딸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모친 12년 구형 ...  
 허술한 복지 등 사회적 책임도」에 대한 설명자료**  
**(12월 9일 경인방송 보도)**  
**- 인천시, 장애인 사망 전까지 기초생계주거, 장애인연금, 활동지원,  
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지원 -**

12월 9일(금) 경인방송에서 보도된 <장애 딸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모친 12년 구형 ... 허술한 복지 등 사회적 책임도> 관련 설명자료입니다.

## □ 주요 보도내용

- 장애 딸과 극단적 선택 시도한 모친 12년 구형
- 모녀가 38년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것, 사회안전망 등 어떠한 온정의 손길도 이들 모녀에게 미치지 못했던 것

## □ 설명 내용

- 38년 동안 모녀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며,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.

- 인천시는 해당 가정에 월 약 104만 원(생계·주거급여, 장애인 연금)과 장애인활동지원(월 120시간, 약 177만 원 상당), 주간보호센터 이용(주5회, 10:00~16:00)을 장애인 사망 전까지 지원하였음.
- 인천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, 발달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에 적극 노력할 방침임.